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6일 오전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시의원들과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간담회를 갖고 행정통합 추진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제공

광주시-시의회, '광주전남 행정통합' 간담회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광주시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장인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과 실국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윤장모 정책기획관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배경과 경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한 뒤,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및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행정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인 특별법 제정과 광주·전남도가 공동으로 구성할 민관합동기구인 '행정통합 추진협의회' 구성 및 발족 등 행정통합 로드맵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공유했다.

특별법 조안에는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및 지원 ▲중앙행정기관 이양 ▲광역생활권 조성 ▲자치권 강화 ▲에너지·AI·문화 기반 조성 등 광주·전남의 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며, 조만간 전남도와 협의

강기정 시장·신수정 의장·시의원 등 40여명 참석... 행정통합 공감 추진협의체 발족·특별법 제정·통합 지자체 출범 등 로드맵 공유

거쳐 단일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별법안에 대해 시·도회의 의견을 들은 후, 2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 지방정부 단체장을 선출하고, 정식 출범을 추진할 방침이다.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집중 심화에 대응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5극 3축' 전략의 하나로 국가적 차원의 주요 과제다. 수도권 집중, 사회적 비용

증가, 행정적 한계를 넘어서는 대전환의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은 지난 2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강기정 시장과 김영문 지사가 공동선언문 발표를 통해 공식화한 데 이어 시·도는 5일 각각 통합추진기획단을 출범하는 등 실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

광주시 행정통합추진단은 문화경제부 시장을 단장으로 2과 4팀(기획, 지원, 법무, 홍보)으로 구성됐으며, 특별법 조안 마

련과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구성 등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행정통합은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하고, 광주·전남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이다"며 "추진 과정에 시민들이 행정통합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민 공감대 형성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민들은 행정통합을 하면 당장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만큼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이룰 필요가 있다"며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운영하게 될 행정통합 추진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협의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부

지면안내

- ▶ 최저임금 1만320원... 육아기 10시 출근에 '노란봉투법' 시행 3면
- ▶ 세계 최초 '2026여수섬박람회'... 여수엑스포 성공 신화 재현 12면

광주 1월 추위... "동상·저체온증·화재 주의하세요"

광주지역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짐에 따라 동상과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과 주택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져 주의가 필요하다.

6일 광주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월 일일 최저기온 0도 미만은 전국 평균 26일로 12월 23.1일과 2월 21.8일에 비해 가장 많다. 최근 5년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3648건으로 사망 34명, 부상 177명 등 총 211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16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담배꽂초 573건, 음식물 조리중 화재 256건, 전기·기계 사용·설치 부주의 230건 순이다.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고 한파 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저체온증, 동상, 교통사고 등 인명 피해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노인·노숙인·아동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랭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겨울철 대표 한랭질환인 동상은 추위에 신체 부위가 얼어 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주로 코·귀·뺨·턱·손가락·발가락 등에 발생한다. 증상이 심할 경우 절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저체온증은 체온이 35도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로 눈·비·바람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옷이 젖은 상태에서는 위험이 더욱 커진다.

의식 저하로 판단력과 행동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읍수나 약물 복용 때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추위에 갑작스럽게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고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해야 한다. 동상 증상이 나타나면 환부를 비비지 말고, 따뜻한 물에 30분 정도 담가 체온을 유지하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또 1월은 전기장판과 난로 등 보조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부주의로 인한 주택화재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세대별로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음식물 조리 중에는 외출이나 자리를 비우지 않아야 한다.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자제하고, 콘센트와 전열기구 주변의 먼지를 주기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외출 때는 전열기구, 다리미, 헤어드라이기 등 플러그를 꼭 뽑아야 한다.

/전광훈 기자

전남서 태어난 2025년생 '출생기본소득' 신청하세요

생후 12개월부터 월 20만 원... 시군 '정부24'에서 접수

전라남도도는 2024년생에 이어 전남에서 태어난 2025년생 출생아에게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전남도는 2025년 11월 기본사회 흐름을 반영해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제도 명칭을 출생기본소득에서 출생기본소득으로 변경했다.

출생기본소득은 아동 출생 후 12개월이 되는 달부터 월 20만 원씩 매월 25일 지급한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며, 신청이 늦으면 소급 지급은 하지 않는다.

지급 대상자는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가 출생신고일로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하고, 신청 시점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를 뒀어야 한다.

신청은 시군 행정복지센터나 인터넷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다. 이미 출생기본

소득을 받는 2024년생은 지급 요건을 유지하면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출생기본소득은 영유아기에 집중했던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청소년기까지 자녀 성장 전반을 고려한 장기·장기 정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제도 명칭을 출생기본소득에서 출생기본소득으로 변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년 지급 요건을 충족한 7천100명 중 7천14명(가집계)에게 지급돼 지급률 98.7%를 기록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인민국장은 "전남의 합계출산율 전국 1위 흐름에 출생기본소득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결혼·임신·출산·양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정책을 강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Self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HACCP (위해요소관리우수) 해양수산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해양수산부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